
		<h1>보도자료</h1> <p>2021. 8. 22.(일) 배포</p>			
보도일	2021. 8. 23(월) 14: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·방송·통신 8. 23.(월) 14:00 이후 보도 가능				
담당과	고교교육혁신과	담당자	과장 김혜림 (☎ 044-203-6276)	사무관 강현 (☎ 044-203-6894)	교육연구사 이영웅 (☎ 044-203-6284)
			교육연구사 최가영 (☎ 044-203-6424)		

2025년 일반계고 학점제 전면 적용을 위한 고교학점제 단계적 이행 계획 발표

- ◆ 마이스터고(2020년), 특성화고(2022년) 학점제 도입에 이어, **일반계고, 2023학년도 고1(현 중2) 부터 고교학점제 단계적 적용**
- ◆ 총 이수학점 192학점으로 적정화, 최소 학업성취수준 보장 지도 실시
- ◆ 교원, 대입, 지역 간 격차 해소 등 학점제 안착을 위한 연차적 지원 방안 마련

< 일반계고 고교학점제 단계적 이행 준비 내용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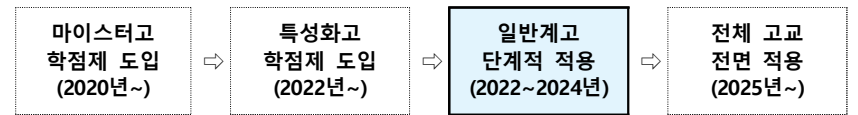
	~2021년	2022년	2023-2024년	2025년
	제도기반 마련	운영체제 전환	제도 단계적 적용	제도 전면 적용
제도	법령, 교육과정, 지침 정비	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2022 개정 교육과정 적용 (25년 고1~)
교원	고교학점제 핵심 교원 양성(~2022) 및 교원 역량 강화	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교육과정과 교원 배치 유기적 연계
		연구·선도학교 교원 추가 배치(2022~)	새로운 교원 수급계획 적용(2023~)	
학교	모든 학교의 학점제 운영 경험 축적(~2024, 100% 연구·선도학교 지정)	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학생 맞춤형 교육 전면화
책임교육	최소 학업성취수준 보장 지도 준비		책임교육 실행(2023~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학점 기반 고교 졸업 체제 운영
공간	모든 고교 학점제형 공간 조성 완료(~2024)			

□ 교육부(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)는 8월 23일(월) 고교교육 혁신 추진단 회의를 열고 '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을 위한 단계적 이행 계획'을 발표하였다.

○ 고교학점제는 고교 교육의 종합적 혁신이 요구되는 정책으로 2025년 전면 적용(2018.8, '고교교육 혁신방향')이 예정되어 있어, 교육부는 **2022년부터 2024년까지 전체 일반계열 고등학교***에 고교학점제를 단계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하였다.

* 일반고, 자율고, 특목고(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제외) 포함 총 1,828개교(2020년 교육통계 기준)

※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(이하 마이스터고)는 2020년, 특성화고는 2022년부터 학점제 도입



【 현장의 준비 상황 】

□ 교육 현장은 **2018학년도부터 연구·선도학교를 중심으로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지역 사회가 참여하는 고교학점제의 운영 모형을 만들어 왔으며, 올해 전체 고교(2,367개교)의 61%***가 고교학점제 연구·선도학교로 운영 중이다.

* 일반계고 939개교, 직업계고 518개교 총 1,457개교 / 61.5%

○ 연구학교(일반계고)에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이 정착되면서 **학교 지정 과목 수는 감소하는 한편, 학생 선택과목 수는 증가 및 유지(약 40개)되는 양상을 보였다.**

< 입학년도별 3개년 개설 과목 수 현황(2019년 시작 연구학교) >

구분	2018년 입학생 (연구학교 운영 이전)	2019년 입학생 (연구학교 1년차)	2020년 입학생 (연구학교 2년차)
학교 지정 과목 수	29.7	25.6	24.8
학생 선택 과목 수	30.2	38.3	40.6

- 학생 선택과목의 경우, 전문교과 보다는 **보통교과(일반·진로선택과목) 범위*** 내에서 **개설되는** 경향을 보였으며, 기존에는 개설되지 않았던 선택과목 수업을 통해 **개인별 진로와 연계된 학습**이 이루어지게 되었다.

* 고교학점제 연구학교에서 공통적으로 편성되는 과목의 96%가 보통교과

※ 고등학교 교과 구분



- 보통교과 : 국어, 수학, 영어, 한국사, 사회, 과학, 체육, 예술, 기술가정, 제2외국어, 한문, 교양
- 전문교과 : 전문교과I(과학, 체육, 예술, 외국어, 국제 계열에 관한 과목), 전문교과II(국가 직무능력표준에 따른 직업계열 과목)

- 전문교과 등 소인수·희소과목의 경우, 개별 학교보다는 **학교 간 공동교육과정(온·오프라인)**으로 개설되어 **학교 단위에서 개설되기 어려운 과목은 공동교육과정**을 통해 **보완하는** 형태로 자리매김 하였다.

※ 공동교육과정 개설 현황(2021.1학기) : 총 2,405과목 중 보통교과 23%, 전문교과 72%, 고시 외 과목 4%

- 올해 기준, **전체 일반계고의 45%**에 **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공간 조성이 완료**되었으며,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학교공간의 **다양화·복합화**를 진행하고 있다.

< 학점제형 학교 공간 조성 예시 >

학습공간	공용공간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다양한 형태의 교과수업이 가능한 학습 공간 마련 • 에듀테크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교수학습 공간 구현  <p>FBL실 온라인수업교실 메이커교실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공간 및 쉬는 시간 휴식, 소그룹 활동이 가능한 자율공간 마련 • 홀베이스, 복도 등 공용 공간의 활용성 제고  <p>홀베이스-자율활동공간 홀베이스-휴식공간 홀베이스-중앙로비</p>
지원공간	이동통신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다양한 수업 및 학생자율활동이 가능한 지원공간 구축  <p>도서실 소규모 활동실 문화예술 활동실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선택과목 확대에 따른 학생이동 동선 최소화를 위한 사용자 입장 공간배치

- 또한, 고등학교와 교육청 단위를 넘어서 **지역 대학, 교육지원청, 지자체, 초·중학교** 등 **관계기관의 고교학점제 참여도** 확대되고 있다.

- 지역대학이나 연구기관이 과목을 개설하거나 교원 연수 등 학점제 운영에 참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, 초·중학교 학부모와 교사 대상으로 고교학점제에 대한 안내도 활성화되고 있다.

< 고교학점제 선도지구(34개) 참여 기관 현황 >

	지자체	지역 대학	지역 단체	지역 병원	기타 지역기관	소계
2020년 (24개 지구)	53	95	29	10	30	217개
2021년 (34개 지구)	61	120	58	15	58	312개

【 의견 수렴 경과 】

- 지난 2월 ‘**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**’ 발표 이후 미래형 고교 교육에 대한 기대 여론이 형성된 반면, **개선해야 할 부분도 지적**되었다.

- 특히, 교육여건의 지역 격차 완화, 학점제를 반영한 대입제도 마련, 교원수급 개선 등은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최우선 해결 과제로서,

- 이를 위해 교육부는 시·도교육청 담당자, 연구학교 교원뿐만 아니라 비 연구·선도학교 교원, 교원단체 등을 대상으로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여 학점제 정착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였다.

※ 시도교육청 협의(2021.4~7., 8회), 연구학교 제도개선 연구회(2021.5~7., 2회), 고교학점제 핵심교원 자문단(2021.5.), 비 연구선도학교 의견수렴(2021.7., 5회), 교원단체 협의(2021.5~8.) 등

- 현장 의견 수렴 결과, 고교학점제로의 단계적 이행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마련해 **학교 현장의 변화를 지속해서 독려**하되, **현장 교사에 대한 실질적 지원 및 지역 격차 해소**를 위한 정책 추진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다.

【 단계적 이행 계획 주요 내용 】

- 2025년 학생 맞춤형 교육체제의 완전한 안착을 목표로, 고교학점제의 단계적 이행은 2021년 기반 정비를 거쳐 2022년부터 이루어진다.
- 2022년에는 법령·지침 정비를 토대로 교원 역량 강화, 시도교육청 및 학교 단위 추진체제 마련 등 **고교학점제 운영체제로의 전환**을 중점 추진한다.
- 2023년(고1)부터는 **수업량 적정화**(204단위→192학점), 공통과목 중 국어·수학·영어에 대한 **최소 학업성취수준 보장 지도** 등을 적용해, 2025년 미이수제·성취평가제(선택과목) 도입을 준비한다.

< 일반계고 고교학점제 단계적 이행안 >

기반 마련	운영체제 전환			제도의 단계적 적용		고교학점제 전면 적용
	~2021년	2022년	2023년	2024년	2025년~	
수업량 기준	단위	단위 (특성화고: 학점)	학점		학점	
총 이수학점	1~3학년 204단위	1학년 204단위	1학년 192학점	1학년 192학점	1학년 192학점	
		2학년 204단위	2학년 204단위	2학년 192학점	2학년 192학점	
		3학년 204단위	3학년 204단위	3학년 204단위	3학년 192학점	
연구·선도학교 비중*		55.9%	84%	95%	100%	고교학점제 안정적 운영
	책임교육	준거 개발	교원 연수 시도학교 준비	공통과목(국어, 수학, 영어) 최소 학업성취수준 보장 지도	전 과목 미이수제 도입	
평가제도	진로선택과목 성취평가제 (공통, 일반선택 9등급 병기)				모든 선택과목 성취평가제 (공통과목 9등급 병기)	

* 시도교육청 계획 수합(2021.4, 일반계고) / 2023년까지 100% 조기 달성 목표

1 ~2021년 : 고교학점제 제도 기반 마련

	교육부	교육청	학교
2021년 기반 정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법령·교육과정 개정 ■ 학교 간 공동교육, 학교 밖 교육 운영 시도 공통 지침 마련 ■ 고교학점제 소요 자원 근거 법제화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시도단위 학점제 추진체제 구축 ■ 정책방향 안내·컨설팅·집중연수 ■ 대학, 지자체 등 교육공동체 구축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고교학점제 준비 상황 진단 및 개선 ■ 교직원·학부모 등 정책 공감대 확산 ■ 학점제형 학교공간 조성 계획 수립

□ 먼저, 고교학점제의 안착을 위해 법령과 지침을 정비한다.

- 2021년 하반기에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의 부분 개정에 착수하여, 수업량 적정화 등 학점제 단계적 도입 내용을 교육과정에 반영한다.

※ 2022년 1월 부분 개정 고시 → 2023년 일반계고 1학년부부터 적용(특성화고는 2022년부터 적용)

< 부분 개정 주요 내용(안) >

- (단위의 학점 전환) 고교 수업량 기준인 단위를 학점으로 전환
- (수업량 적정화) 총 204단위에서 192학점으로 적정화(교과 174학점, 창체 18학점)
- (공동교육과정 등 근거 제시) 공동교육과정, 학교 밖 교육 관련 지침 근거 마련
- (교육청 역할) 학점제 단계적 도입 지원을 위한 교육청 역할 제시
 - 학점 기반 고교 교육과정 지원계획 수립
 - 최소 학업성취수준 보장 지도에 대한 행·재정적 지원

-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 대비 과목 재구조화, 기초소양 함양 등 2022 개정 교육과정 주요사항을 2021년 하반기에 확정·발표한다.
- 또한, '학교 간 공동교육과정', '학교 밖 교육' 운영에 대한 시도교육청 공통 지침을 마련하여, 학교 울타리를 뛰어넘는 다양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.

	교육부	교육청	학교
2022년 운영체제 전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고교학점제 핵심교원 양성(교당 1명) 연구·선도학교 교원 추가 배치(22~) 미래형 교원 수급계획 수립(~'22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모든 교원의 학점제 역량 강화 교육과정 연계 교·강사 배치 계획 수립 학교 밖 교육 기관 발굴 및 운영 시작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학생 수요 기반 교육과정 운영 준비 학교단위 고교학점제 운영체제 구축 (전담조직, 교육과정 규정)

□ 2022년은 학교가 학점제 체제로 본격 전환하는 시기로서, 단위학교의 학점제 운영 준비를 지원한다.

○ 먼저, 현재 일반계고 55.9%가 참여하고 있는 연구·선도학교 참여율을 80% 이상으로 높여 더 많은 학교가 학점제 운영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한다.

< 시도별 연구선도학교 100% 지정 시점 >

2022년	부산, 경기, 충북, 전남, 경북
2023년	대구, 광주, 대전, 경남, 세종, 강원, 충남, 제주
2024년	서울, 인천, 울산, 전북

※ 일반계고

< 일반계고 연구선도학교 확대 계획(비율) >



○ 연구·선도학교가 아닌 일반 학교에서도 단계적 이행을 준비할 수 있도록 '고교학점제 안내서'를 2022년 3월까지 개발·보급하고,

○ 학점제 운영 관련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교육청, 대학 등 각 기관에서 개발·축적한 자료 등을 공유·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한다.

※ 기관별 개발 자료 사례: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운영 안내서(교육부), 어떤 과목을 언제 배울까(부산),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교생활 가이드북(서울대) 등

○ 한편, 학내 의견 수렴과 협의를 거쳐 학교 교육과정 규정을 마련하고 교육과정 전담 부서·교육과정 이수 지도팀 등 학교 단위의 학점제 운영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학점제 운영 기틀을 잡는다.

※ 구성원의 고교학점제 정책 이해도, 학교단위 추진체제, 타 학교와의 네트워크 구축 노력 등 고교학점제 준비상황 진단 및 지원(2021~2022)

□ 학교뿐만 아니라 교원의 학점제 운영 역량을 강화한다.

○ 단위학교 교육과정 기획을 담당할 교육과정 설계 전문가를 2022년 까지 학교당 1명 이상 핵심교원으로 양성하고,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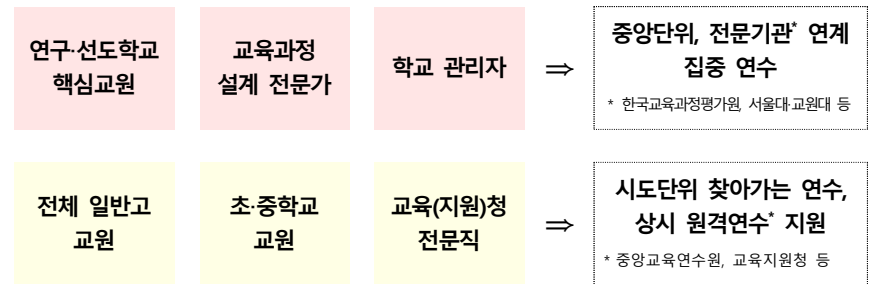
※ 교육과정 설계 전문가 인원(누적) : (2020) 320명 → (2021) 1,000명 → (2022) 1,600명

※ 시도별 교육과정 전문가 양성 현황 : 서울, 대구, 울산, 대전, 세종, 광주, 충북, 전북 등

○ 모든 고교의 교원, 교육전문직 등이 고교학점제를 심층 이해하고 운영 역량을 갖추도록 교육청과 함께 연수를 확대·추진한다.

※ 학교관리자 연수(중앙단위), 전체 일반고 교원 및 초·중 교원 연수(교육청) 등

< 대상별 고교학점제 연수 추진 현황 >



○ 이외에도 최소 학업성취수준 준거 및 연수자료 개발, 성취평가제 교원 학습공동체 활성화 등 학점제의 핵심 요소인 성취평가제와 미이수제가 안착될 수 있도록 교원의 역량을 본격적으로 강화해 나간다.

	교육부	교육청	학교
2023-24년 단계적 적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일반계고 192학점 적용(23년 고1~) 수강신청 시스템 개통(4세대 나이스) 2028학년도 대입 방향 발표(24.2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연구·선도학교 100% 달성 교육(지원)청 단위 책임교육 지원 성취평가제 안착 기반 마련 및 연수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선택형 교육과정 안착 진로·학업설계 지도 내실화 최소 학업성취수준 보장 지도(공통과목)

□ 2023학년도 고교 1학년부터 교육과정에 학점제가 일부 적용된다.

- 고등학교 수업량 기준인 '단위'가 '학점'으로 전환되고 고교 3년간 총 이수학점은 192학점으로 조정되며,
-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학점 역시 지난 2월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에서 밝힌 바와 같이 각각 174학점, 18학점으로 조정된다.

< 고등학교 학사 운영 체제의 변화 >

	현재	단계적 이행		전면 적용
	2021년	2022년	2023~24년	2025년~
수업량 기준	단위		학점	학점
1학점 수업량	50분 17(16+1)회		50분 17(16+1)*회	50분 16회*
총 이수학점 (이수시간)	204단위 (2,890시간)		192학점 (2,720시간)	192학점 (2,560시간)
교과·창체 비중	교과 180 창체 24		교과 174 창체 18	교과 174 창체 18

* 교과 수업횟수는 감축되나, 현행 수업일수(190일 이상,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5조)는 유지하여 학교가 교과 융합 수업, 미이수 보충지도 등 다양한 프로그램 자율적 운영

- 총 이수 학점 조정을 통해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, 학교 밖 교육 등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이 학교 일과 시간 중에 이루어질 수 있어 학생과 교사의 부담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된다.

□ 그간 고교학점제 연구·선도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최소 학업성취수준 보장 지도가 모든 학교에서 실시된다.

- 최소 학업성취수준 보장 지도는 학점 이수 기준인 학업성취율 40%(2025년 적용)를 기준으로 미도달 예방 지도, 미도달 학생 보충 과정을 운영하는 일련의 과정으로,
- 학생들의 기초 학업역량 함양을 위해 선택과목을 이수하기 전 수강하는 **공통과목(국어, 수학, 영어)**에 대하여 최소 학업성취수준 보장 지도가 실시된다.

※ (2023) 공통과목 최소 학업성취수준 보장 지도 → (2025) 전 과목 미이수(I) 도입

- 최소 학업성취수준 보장 지도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의 교수·학습 자료 개발, 온라인 프로그램 마련 등 학교 및 교원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.
- 이를 통해 학교 현장은 2025년 미이수제를 준비하면서 책임 교육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한편, 교육부 및 교육청은 학교 및 교원에 대한 **행·재정적 지원을 확대**할 나갈 예정이다.

※ 고교학점제 운영비를 시도교육청 보통교부금 기준재정 수요에 반영(2021.하반기)

□ 2025년 전면 적용을 위한 고교학점제의 단계적 이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한다.

□ 먼저 교원 업무 경감을 위한 방안을 현장과 함께 마련한다.

- 고교학점제 **교원단체 협의체**를 구성(6개 교원단체* 참여)하고, 교원 업무 경감, 전문성 지원 방안 등 구체적인 **교원 지원 방안**을 논의한다. (2021.8~ , 월 1회 개최)

* 교사노동조합연맹, 새로운학교네트워크, 실천교육교사모임, 전국교직원노동조합, 좋은교사운동,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(가나다순)

- 2022년에는 학교별 학점제 전담교사를 지정·운영할 수 있도록 연구·선도학교 운영 규모에 따라 시·도별 중등 교원을 배정(452명)하고
- 2023년부터 적용될 교원수급계획*에는 개설과목 증가, 학업설계, 미이수 지도 등 고교학점제 교원 수요를 반영한 새로운 교원 수급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.

* 새로운 교원수급전망모델은 2022년 교원수급계획(2023~2027) 수립 시부터 적용

□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지원한다.

- 정규시간 내 운영, 온라인 활용 등 공동교육과정 내실화를 통해 농어촌 등 여건이 열악한 학교의 과목 개설을 지원하고,
 - ※ 온라인 공동교육 거점센터(2021년 22개) : 교원 증원 배치, 기술 전담인력 지원 등
- 농어촌·소규모 학교에서도 일정 규모의 학교(예: 학생수 300명)만큼 과목 선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 소속 교과 순회교사, 중·고 교원 겸임 활용 등을 포함한 교원 추가 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.
- 또한, 지자체-대학 협력 중심의 지역혁신 플랫폼과 고교학점제 운영을 연계하여 지역의 핵심 분야를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간다.

< 지역혁신 플랫폼(2021년 지원) >

지자체	핵심 분야
광주·전남	■ 에너지신산업 ■ 미래형운송기기
대전·세종·충남	■ 모빌리티 소재부품장비 ■ 모빌리티 ICT
울산·경남	■ 스마트제조엔지니어링 ■ 미래모빌리티 ■ 스마트제조 ICT ■ 저탄소그린 에너지
충북	■ 제약바이오 ■ 화장품·천연물 ■ 정밀의료·기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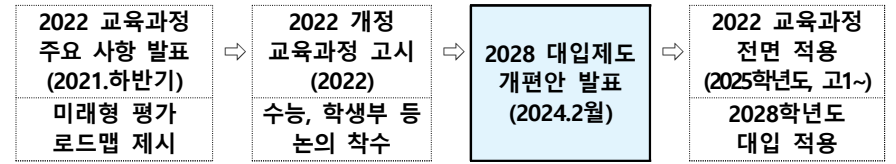
< 고교학점제 연계 >

- 지역 내 대학과 연계하여 지역 핵심분야 교과목 개발·운영
- 대학의 인적·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교육 콘텐츠 개발 지원

□ 고교학점제에 부합하는 미래형 대입방향을 마련한다.

- 미래교육에 대한 국민의 요구, 2022 교육과정, 고교학점제 등 교육의 변화에 부합하는 미래형 대입제도를 2024년까지 마련하되, 미래형 평가 로드맵 등은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과 함께 제시할 예정이다.

< 미래형 대입방향 추진 절차(안) >



-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“고교학점제는 학생 선택을 존중하는 학생맞춤형 교육과정을 구체화한 정책으로, 우리 교육의 큰 전환점이 될 것”이라고 설명하며,
 - “고교학점제는 2020년 마이스터고, 2022년 특성화고, 2025년 일반계고에 도입되는데, 특히 일반계고는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만큼, 오늘 방안을 바탕으로 학교 현장과 2024년까지 체계적으로 준비해나갈 것이다.”라고 밝혔다.

【붙임】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을 위한 단계적 이행 계획(별첨)